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지역별 편차

13차 방제 실시설계 결과 조천·표선·동 지역 증가세 나머지 지역에선 12차 방제량에 견줘 소폭 줄어들어 행정시 “5월까지 작업 중 추가 발생 고사목 늘어날 것”

제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고사한 소나무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조천, 표선, 동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13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2025년 10월~2026년 5월)를 위해 지난해 말 실시설계용역 결과 고사목은 제주시 지역 3만 9880그루, 서귀포시 지역 2만 7910그루로 조사됐다. 12차 방제(2024년 10월~2025년 5월) 방제량(제주시 3만 8452그루, 서귀포시 3만 4159그루)과 비교하면 제주시 지

역은 3.7% 증가하고, 서귀포시 지역은 18.3% 감소한 수치다. 다만 양 행정시는 예년의 경우에 비춰볼 때 고사목 방제기간인 오는 5월까지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조천읍과 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해 10~12월에는 3억 6800만원을 들여 총 6484그루의 고사목을 제거했다. 제거 고사목은 구좌읍 3708그루, 조천읍 2168그루, 우도면 608그루다.

올해는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확인된 고사목 3만 3396그루 제거에 4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구좌읍 지역이 1만 5859그루로 가장 많고 ▷조천읍 8245그루 ▷애월읍 5211그루 ▷한림읍·한경면 1519그루 ▷동지역 2562그루다.

지난해 10~12월 제거량과 올해 추진할 제거량을 모두 포함하면 제주시 동지역(2046→2560그루)과 조천읍(6059→1만 413그루) 지역에 서 12차 방제보다 고사목이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전반적으로 12차 방제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실시설계를 통해 지난해 10~12월 읍면동 전역에서 고사한 소나무 4359그루에 대한 방제를 마쳤

다. 또 5월까지 방제 예정인 소나무는 2만 5551그루다. ▷남원읍 8395그루 ▷표선면 5203그루 ▷성산읍 2706그루 ▷안덕면 2057그루 ▷대정읍 1339그루 ▷동지역 3851그루다. 올해 고사목 제거 사업비는 34억 1500만원이다.

13차 방제 예상량을 12차와 비교하면 표선면(5485→6765그루)과 동 지역(3160→4296그루)에서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12차 방제량보다 감소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년 그래왔듯이 이달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작업을 발주해 진행하면서 추가 확인되는 고사목까지 포함하게 되면 13차 전체 방제량은 실시설계 때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수업중 성희롱 발언

전직 고교 교사 유죄 확정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해당 교사는 교원 자격도 잃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 등의 명령을 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명령은 그대로 유지한 채 벌금이 1000만원으로 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A씨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 자격마저 잃게 됐다.

A씨는 2023년 3월,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에 재직 중 학생들에게 인격 비하 발언이나 수업 중 “XX(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XX는 좋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기금교수 고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학내 구성원들이 삽발과 단식 투쟁에 나섰다. 13일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실버케어복지학과 김상돈 동문회장과 2학년 유수경 씨가 대학 측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며 삽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구성원 삽발 항의

어제 삽발식… 제주대 “사업 종료 따른 조치”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기금교수 고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삽발로까지 번지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학 측은 사업 종료에 따른 절차적 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교수·학생·동문들은 학습권 침해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13일 오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관 앞에서는 미래융합대학 교수와 학생, 동문 등이 참여한 삽발식이 진행됐다. 이날 실버케어복지학과 동문회장 김상돈 씨와 재학생 유수경 씨가 삽발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기금교수 계약 종료가 교육과정 연속성을 해치고 성인학습자와 대학원생의 학습·연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대는 13일 “평생 교육체계 지원사업(Life2.0) 종료에 따른 조치”라며 “계약교수 6명을 배정해 학과별 임용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채현기자

경 씨가 삽발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기금교수 계약 종료가 교육과정 연속성을 해치고 성인학습자와 대학원생의 학습·연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대는 13일 “평생 교육체계 지원사업(Life2.0) 종료에 따른 조치”라며 “계약교수 6명을 배정해 학과별 임용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채현기자

1t트럭·트랙터 충돌… 70대 2명 병원 이송

서귀포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과 트랙터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1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에서 1t 트럭과 트랙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70대 남

성 A씨가 트럭 내에 끼여 머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또 트랙터 운전자 70대 남성 B씨도 다리 등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도청 산림과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를”

도, 업체 등에 주의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청 산림과 소속 주무관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확인됨에 따라 도내 업체와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사기 수법은 제주도청 산림과 주무관 명의를 도용한 위조 명함을 제작한 뒤 산불감시초 설치·보수 또는 창호 교체 공사 등을 빌미로 관련 업체에 견적 요청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실제 공공 사업과 유사한 내용을 앞세워 업체의 경계를 늦춘 뒤 물품 납품이나 공

사 계약을 시도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는 공공기관 계약 절차상 공무원이 개인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견적을 요청하거나 선납·대납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특히 모든 공사·물품 계약은 정해진 행정 절차와 공식 공문을 통해서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도내 관련 업체와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 범죄 수법을 적극 안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사리철 길 잊음 주의보’ 올해 첫 발령

제주소방안전본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계획’ 수립 여름철 수난사고 포함 17개 유형별로 20회 발령 예정

오는 3월 농번기철 전경·전동가위 사고와 고사리철 길 잊음 안전사고를 비롯해 해수욕장 개장 전인 6월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에 따른 ‘안전사고 주의보’가 신설, 올해 첫 발령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2026년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계획’을 수립, 올해 17개 유형별로 주의보 20회(현행 14, 신규 3, 시기 조정 2, 추가 1)를 발령할 계획이다.

13일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계획에 따르면 발령시기별 주의보 명칭은 ▷1월 이사철(신규간) 가스사고 ▷2월 농번기철 파쇄기 안전사고 ▷3월(4건) 봄철 물불 화재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2026년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계획’을 수립, 올해 17개 유형별로 주의보 20회(현행 14, 신규 3, 시기 조정 2, 추가 1)를 발령할 계획이다.

13일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계획에 따르면 발령시기별 주의보 명칭은 ▷1월 이사철(신규간) 가스사고 ▷2월 봄철 온열질환 사고, 수난사고(신규 발령) ▷7월(2건) 휴가철 야외활동 안전사고, 낚시 안전사고(지난해 10월 발령에서 시기 조정) ▷6월(2건) 여름철 온열질환 사고, 수난사고(신규 발령) ▷7월(2건) 휴가철 야외활동 안전사고, 낚시 안전사고(지난해 10월 발령에서 시기 조정) ▷8월(2건) 여름철 온열질환 사고, 수난사고(신규 발령) ▷9월 주석 전 벌초작업 안전사고 ▷10월(2건) 가을철 산악 안전사고,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11월(2건) 겨울철 난방용 품 화재, 물불 화재(추가 발령) 등이다.

백금탁기자

JM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 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

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맷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번호 제6039호)는 ‘한국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협성의(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제취해서 자가묘목, 고정,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국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흉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직발시 농가나 유통업체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농가 · 업체: 3개 업체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귤묘목

▲ 유라조생 2년생 4년생

▲ 천혜향 2년생 3년생

▲ 궁 천 3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한라봉

그 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 010-2699-2355